문화수도시민 예술교양 강좌 확대

광주시는 올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무료 문화예술강좌 및 문화학교 운영 등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문화바우처(voucher)사업 활성화, 문화예술축제 육성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문화수도'에 걸맞는 문화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소외계층 찾아가는 연극 공연도
광주시, 문화수도 교육 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 확대**=광주의 역사와 문화, 예술 개관 등 기본 소양과 현장 체험교육을 함께 실시하는 '시민 문화예술강좌'가 3월부터 11월까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 학교 등에서 실시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문화예술강좌에는 49차례에 걸쳐 3천여명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를 전공한 대학·대학원 졸업자 40명을 강사로 양성했다.

문화예술 향유 격차를 줄여주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계층 아동·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도 연중 실시된다.

광주시내 70여개 초·중·고교에는 전문 국악인 34명을 파견해 학생들에게 국악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14개 학교에는 판소리·수채화·한국화·서예·국악 등을 지도하는 '문화학교'를 운영, 학생들에게 예술적 감성을 키워줄 계획이다. 문화예술 특성화학교 운영과 '판소리 한 대목 부르기 교육'도 병행한다.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확대**=민간 문화예술단체가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음악과 무용, 연극 공연 등을 해주는 '찾아가는 공연활동'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주관단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55세 이상의 퇴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실버연예예술단'이 양로원과 복지관, 공원 등을 찾아가 대중예술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1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문화 소외계층의 공연 및 전시관람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랑의 티켓'제도도 운영된다.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공연의 경우 3천원~5천원, 전시는 1천원~2천원을 복권기금과 시 예산에서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장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연·영화·전시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권을 제공하는 '문화바우처'사업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된다. 지원 범위는 관람티켓과 교통비를 포함 1인당 연간 최고 5만원까지다.

시는 이와 함께 공연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단돈 1천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천원의 낭만' 공연을 2월부터 매달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개최한다.

◇**문화예술축제 육성**=예향의 특성이 담긴 지역 문화예술축제를 전국화·세계화하여 광주의 대표 축제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우선 지난해 5천여명이 관람한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10월 중 사흘간 개최해 음악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국 관광객 유치 및 한·중 문화교류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신인 예술인 발굴을 위해 '제 3회 광주국제공연예술제'를 8월 중 문화예술회관과 시내 일원에서 개최하고, 9월에는 판소리·기악·무용·시조·농악·가야금 병창 등 6개 종목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전국적인 국악경연대회인 '임방울국악제'를 연다. 10월에는 광주 고싸움놀이 행사가 개최된다.

이들 4대 문화예술축제에는 모두 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박창기 광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실버컴퓨터 교육 11일 광주시 남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된 '실버컴퓨터 교육'에 참여한 노인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살피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형공사 현장 점검

광주시가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대형공사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벌인다.

13일부터 실시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공정률 30% 이상인 대형공사 현장 13곳으로 견실시공의 기초가 되는 각종 품질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게 된다. 점검 항목은 레미콘과 아스콘, 콘크리트의 적정 사용 여부, 철근 등 사용자재 관리 상태 등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여성포럼 명칭 공모

광주시가 광주여성포럼(가칭)의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 명칭은 전문직 여성들의 교류와 유대 강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상징하거나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담아 10자 이내로 만들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정식 명칭으로 채택될 최우수작 1개와 우수작 2개, 장려작 3개에 대해서는 각각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내마을 가꾸기' 주민들 손으로

서구, 사업계획 공모
사업비 2천만원 지원

광주시 서구는 주민들이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 사후관리까지 참여하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서구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관내 17개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생조직, 주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전통문화 및 유적지 복원, 자투리땅 소공원조성, 산책로 훼손 복원, 편의시설 및 가로경관 가꾸기, 특화거리 조성 등 6개 분야.

접수된 사업은 주민 참여 정도,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사업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모두 1억7천만원의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토목·건축·문화예술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지원단이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하고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또 최종 선정된 사업은 오는 4월부터 주민 주도로 세부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방식 결정을 마친 뒤 추진할 방침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마을을 새롭게 바꿔가는 리모델링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

동구 '겨울모기 잡기' 방역소독

광주시 동구는 11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동구 관내 대형건물과 아파트 정화조, 하수구, 시장 등 대해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구는 1개반 3명으로 구성된 방역소독반을 편성하여 100인 이상 정화조,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복개천, 소태천을 대상으로 권역별 구제활동을 펼친다.

또한 동구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생활주변 고인물 없애기, 잡초제거, 불법 쓰레기 수거 등으로 유충의 서식처를 제거, 모기 발생밀도를 감소시킬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겨울철 기온상승과 도시환경 변화로 인해 서식지가 다양해지고 있는 월동모기 및 유충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동계 방역소독이 필수"라고 밝혔다. /안현주기자 ahj@

부설 주차장 轉用
불법 건축물 단속
도심 교통난 해소

광주시가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상가 부설주차장과 위법 건축물을 일제 점검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주차장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와 무허가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건물 등 위법 건축물을 연중 단속한다.

시는 일부 주택과 상가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용도와 달리 사용함으로써 도심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단속결과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요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설치 규정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도심 주차난의 가중에 따라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용도에 맞게 주차장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이웃간 땅 싸움 이제 그만

광주시 지적측량결과 DB화 연내 완료

이르면 내년부터는 이웃간 토지경계 다툼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임야 및 토지 경계의 변동 사항을 담은 지적측량결과도 데이터베이스(DB)화 사업이 올 안으로 완료되기 때문이다.

지적측량결과도는 토지가 분할되거나 등록 전환되는 등의 변동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경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확인·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측량결과도와 비교하는 지적도면이 지난 1910년부터 작성돼 훼손된 경우가 많은 데다 주로 수작업에 의존해 임야도(6천분의 1 축적)를 토지 기준인 1천200분의 1 축적으로 바꿀 경우 경계가 부정확하게 되는 등 잦은 민원 사유가 돼왔다.

시는 이에 따라 2003년 지적도면을 모두 전산화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지적측량결과도 DB화 사업을 추진해 올해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해주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토지경계와 관련 주민다툼이 크게 주는 것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12일) 진용태 226-2080
- 법무사회 법률상담(12일) 주기태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상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